



긴 불황의 늪을 벗어난 양돈 경기가 계속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어려움을 이겨낸 보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호황을 맞으면서도 양돈농가들은 마음속 한편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언제 다시 '79년과 같은 불황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돼지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많은 양돈농가에서 돼지 두수를 늘리고 있다. 그것도 후보돈을 확보하는 등 모돈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참여하는 양축가와 양돈으로 전업을 피하는 수도 증가 일로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 100두이상 사육규모에서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돼지 두수가 늘어난다면 지난 해 9월 3백만두 수준이던 사육두수가 올 봄에는 3백 20만~3백 30만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해서 6월 쯤에는 3백 50만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돼지고기 수요를 늘리기 위한 홍보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불황이 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올해의 아시안 게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 최근의 배합사료 생산 동향과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의 성비를 관찰해 볼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예상되는 불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즉 모든 증식을 억제하는데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모돈을 늘리지 말자"고 아무리 강조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돈을 늘리지 말자는 암시적인 약속은 우리 양돈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생산원가절감에 노력 해야만 하겠다.

만약, 불황이 오더라도 생산비가 낮은 농가와 높은 농가가 받는 타격의 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생산비가 낮은 농가는 미약한 불황은 느끼지도 않고 넘길 수 있을뿐만 아니라 웬만한 타격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체계화되고 과학화되어 가는 양돈 산업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생산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셋째, 종돈의 능력을 고도화 시켜야 하겠다.

몇 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종돈 개량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양돈 사업의 앞날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우량형질의 종돈을 확보하여 사료효율을 높이고, 출하 일령을 단축함은 물론 육질의 개선에도 노력하여 양질의 육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사양기술의 향상과 질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무나 돼지를 기르던 시대는 지났다. 향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사양기술 습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신 사양기술에 의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론과 경험이 조화를 이룬 지식만이 합리적인 경영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호황이 계속될 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질병 예방에 한시라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대개 호황기에 전염병 발생률이 높는데 한번 질병이 발생되면 돈사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질병이 상재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독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 창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정확한 통계와 관측에 따라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돈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협회나 축산관계 기관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전망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여 출하두수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힘들여 길러 놓은 돼지를 좋은 값으로 팔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정보에 접하여 경영의 탄력성을 살려야 한다.

옛 말에 “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양돈인들이 당하고 받게 될 타격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 양돈인들의 슬기를 모아 불황없는 안정적인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고발란 이용시 기록할 내용

- ① 구입한 장소
- ② 구입한 날짜
- ③ 구입 물품명
- ④ 구입시 가격
- ⑤ 제품의 문제점
- ⑥ 구입처 (제작회사, 판매회사)
- ⑦ 판매인 성명 · 주소
- ⑧ 기타 의견

본지에서는 양돈관계 제품의 질적향상과 양돈농가의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 고발센터”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란에서는 양돈관계 기계·기구·사료·약품·종돈 등 양돈에 관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고발을 접수하여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불량제품을 구입하였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본지로 구입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 보내 주시면 관계회사에 의뢰하여 교환·변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그 사례를 본란에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34번지  
대한양돈협회 홍보부  
전화 : 778-5540, 778-5450